

지난주 침례 인수	2016년 인천 교회 나아갈 방향 모든 성도가 신성한 헌신 안에서 부흥되어 하나님-사람 생활을 살고 열매 맺는 해	2016 침례 인수
3명		9명
인천 교회 기도 제목		몸의 요청 기도 제목
◎ 새해의 인수 목표를 이루게 하소서. ◎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신실하게 가게 하소서. ◎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일으키소서. ◎ 새롭게 확장한 영종 지역을 축복하소서. ◎ 강화 그룹과 가평 교회를 축복하소서.		- 회복 안의 모든 성도들이 참된 제사장직분을 회복하게 하십시오 - 남한 땅에서 만 명의 다음세대 제사장들을 일으키십시오. - 남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새 길을 실행하여 새로운 부흥에 이르게 하십시오. - 북한 땅에 복음을 확산하십시오. - 교육관 건축을 위하여 모든 건축 과정을 인도하십시오.

◆ 교회소식

《인천 교회 집회 안내》

1. 매월 첫째 화요일 기도 실행 안내

* 일시 : 3.1(화) : 몸의 요청 기도 참조

2. 자매 집회 : 2016.3.3(목) 오전10시 연수동집회장소

3. 목회자 세미나 (에베소서)

- ① 일 시 : 3.8(화)~5.31(화) 오전 10시 ~오후3시
- ② 장 소 : 인천 교회 학생센터
- ③ 대 상 : 목회자, 복음전구, 성도들
- ④ 회 비 : 30,000원(중식 및 교재비포함, 대학생은 회비 없음)

4. 대학생, 청년, 직장인 쉬임 집회

- ① 일 시 : 3.5(토) 애잔 오후 6시, 집회 오후 7시30분
- ② 장 소 : 산곡동 집회장소

5. 인천 교회 책임 봉사자들의 지역 쉬임 방문 안내

인천 교회는 책임 봉사자들의 지역간 쉬임을 위해 매월 1회 주일마다 서로 다른 지역의 주일 집회에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주 2016.3.6일(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전국 및 해외 집회 안내》

1. 서울 전시간 온라인 훈련(eFTTS) 안내

- ① 훈련기간 : 5년(80학점 졸업)
- ② 훈련경비 : 한 학기당 180,000원
- ③ 신청 기간 : 2.14(주일)~ 3.7(토)까지
* 기존 훈련생도 등록기간 동일함
- ④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참조 www.eftts.org
회원가입후 입훈신청
- ⑤ 신청 서류 : 전시간 훈련 신청서, 개인 간증문, 전시간훈련 헌신서약서를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
- ⑥ 문의 사항 : Tel 031-286-6424, Fax 031-286-8743
e-mail : eftts@naver.com 및 홈페이지 참조

◆ 지난주 집회 인수 현황 (2016.02.15(월) ~ 2016.02.21(주일))

지역	1지역 (75명)					2지역 (112명)					3지역 (92명)					4지역 (113명)					5지역 (109명)					6지역 (52명)					7지역 (19명)					계														
그 룹	학 인	인 문	인 문	신 학	신 학	가 장	가 장	가 장	가 장	가 장	가 장	가 장	가 장	가 장	가 장	가 장	가 장	가 장	가 장	가 장	가 장	가 장	가 장	가 장	가 장	가 장	가 장	가 장	가 장	가 장																				
인수목표	113					157					110					194					146					80					800																			
주외상	11	16	9	15	20	4	8	15	13	19	11	15	19	12	22	18	18	19	15	15	6	1	10	18	9	11	7	14	13	25	37	28	19	13	12	15	12	9	10	572										
기 도	7	3	2	8			2	6	8	6	6	6	10	10	7	12	9	11	8	6	5	3	8	3	6	4	2	7	18	10	7	7	6	7	5	1	5	231												
그 룹	7	4	2	10	17			6	5	8	4	5	14		14	7	12	12	15	8	7	4	2	9	5	5	6	6		8	20	11	15	10	4	8	10	7	6	293										
아침묵상	11	5	3	7	8	1																								10	23	16	13	13	5	8	4	7	158											
어린이	11					17					9					30					10					6					9														92					
아빠사랑						2					8					9															7																			26
종교개혁	8					2					14					10					20					13																								67



인천 교회 소식

WEEKLY LETTER OF CHURCH IN INCHEON

집사실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94번길 40

홈페이지 주소 : www.icchurch.or.kr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2016. 02. 28. 16-09

032-566-0190 FAX 032-567-0190

E-mail : triune@nate.com

금 등잔대

제1:20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별과 일곱 금 등잔대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일곱별은 일곱 교회의 권당자이고,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이다.

1. 삼일 하나님의 표현

등대는 삼일 하나님의 표현을 상징한다. 이것만으로도 등대가 얼마나 비밀한가에 대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기에 충분하다. 우주 가운데 삼일 하나님보다 더 비밀한 것은 없다. 더 나아가, 성경 안에 있는 신성한 계시 가운데 가장 수수께끼 같은 요소가 또한 삼일 하나님이다. 역대로 성경을 읽는 이들은 성경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 곤혹을 치러 왔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삼일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등대가 삼일 하나님의 표현임을 보는 것은 매우 도움을 준다.

이 금 등대의 문제를 깊이 살펴볼 때 우리는 성경이 온전한 실체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를 말씀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해서는 안 되며 성경의 모든 다른 책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등대는 출애굽기에서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스가랴, 계시록에서도 언급된다. 계시록 1장에 의하면 등대는 교회이다. 더 나아가, 일곱 등불은 그 영(the Spirit)이다. 이 얼마나 비밀한가! 결국, 신성한 계시의 완성에서 출애굽기 25장의 등대는 교회가 되고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영이 된다. 등대가 교회와 하나님의 영 모두와 연관되어 있는 까닭에 이를 통하여 우리는 대단히 많은 것이 등대에 포함되어 있음을 본다. 계시록은 또한 교회와 영을 강조한다. 계시록 22장 17절은 나아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라는 말씀을 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영과 교회가 말씀하심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본다.

A. 본질

등대의 본질과 대와 등불들을 깊이 상고할 때, 우리는 등대가 참으로 삼일 하나님의 표현임을 본다. 25장 31절에 의하면, 등대는 정금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금이 등대 전체의 실질이요 요소이다. 예표론에서 금은 신성한 본성,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상징한다. 등대의 이 본질의 요소를 깊이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것이 신성한 본성을 상징함을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그 본성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등대의 실질임을 볼 수 있

다. 금 등대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 안에 존재한다.

B. 대

아버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추상적이다. 아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분의 체현이다. 대는 아버지 하나님의 체현이신 아들 하나님을 상징하는 형태이다. 등대의 이 확실한 형태는 금의 체현이다. 신약에 의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안에 체현되었다. 여기 등대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상징하는 본질을 보고 아들을 상징하는 견고한 형태를 본다.

C. 등

출애굽기 25장 37절은, "등잔 일곱을 만들어"라고 말한다. 이 일곱 등불은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일곱 영이심을 상징한다(계4:5, 5:6). 등의 빛남은 표현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일곱 등불은 아버지 하나님의 체현이신 아들 하나님의 표현이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일곱 등불이 하나님의 영임을 본다.

우리는 등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의 요소와 아들 하나님을 상징하는 대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일곱 등불을 보는 까닭에 등대 자체가 삼일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계시록에서 등대가 교회가 됨을 지적하였다. 이것을 깨달을 때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깊어지고 풍부해질 것이다. 교회는 사실상 하나님의 표현이다. 이 표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본성과 아들의 체현과 성령의 표현을 본다.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본질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체현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표현이시다. 등대는 출애굽기 25장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계시록 1장에서는 교회들을 상징한다. 이것은 유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재생산되었다는 것과 하나의 등대가 일곱 개의 등대가 되었음을 가리킨다. 출애굽기 25장에서 우리는 걸작품을 보지만 계시록 1장에서 우리는 재생산되고 증가된 걸작품을 본다.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하나의 등대와 계시록에 있는 일곱 등대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라! 처음에 하나님의 표현은 등대이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었다. 이제 이 표현은 금 등대들이 교회들 안에서 재생산되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가 재생산되었음을 본다. 교회는 사실 그리스도의 재생산이다. 그리스도와 교회 모두가 삼일 하나님의 표현이다. 교

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아들의 체현과 영의 표현을 본다. 얼마나 놀라운가!

2. 성소 안에 있는 빛 비춤

등대는 성소 안에서 빛 비춘다. 즉 그것은 교회 안에서 비춘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논쟁하며, "왜 당신들은 당신들을 교회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당신만큼 교회가 아닌가?"라고 질문한다. 누가 교회인가에 대하여 다룰 필요가 없다. 당신이 참으로 교회라면 당신은 교회이다. 그러나 당신이 교회가 아니라면 당신은 다만 교회가 아닌 것이다. 예를 들면, 나는 남자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랴 말하든 상관없이 사실이다. 내가 남자인 고로 내가 그 사실을 광고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그 사실을 논쟁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교회라면 분명 등대의 빛 비춤이 우리 중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바깥뜰, 성소, 지성소와 연관된 세 종류의 빛이 있다. 바깥뜰에서 우리는 천연적인 빛,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을 본다. 바깥뜰은 노천이므로 이런 종류의 빛이 있다. 그러나 성소와 지성소는 모두 다 덮여 있다. 이 덮개는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을 통과하지 못하게 한다. 만일 성소 안에 특별한 종류의 빛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어둠이 가득한 지하 감옥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성소는 일곱 등잔이 있는 등대의 비춤으로 인해 빛 비춤을 받으므로 빛이 충만하다.

제사장이 바깥뜰을 떠나 성소 안으로 들어 올 때마다 등대 위의 등잔들로부터 나오는 빛 비춤을 볼 수 있었다. 등대의 빛 비춤은 그 곳이 참으로 성소라는 증거였다. 빛 비추는 등대가 없었다면 그 곳은 어두운 지하 감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등대의 빛 비춤은 그것이 성소임을 증명한다. 원칙은 오늘 교회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누가 교회이고 누가 교회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집회 가운데 어둠이 있는가, 아니면 등대로부터 나오는 빛의 비춤이 있는가를 분별함으로 결정할 수 있다. 어떤 믿는 이들이 교회인가 아닌가는 그들 중에 등대의 빛 비춤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

시편 73장 16절과 17절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라고 말한다. 시편 기자는 특별한 상황에 대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복잡하게 되었으며 당혹하게 되었다. 그가 그것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것은 그에게 고통스러웠다.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는 깨달음을 받았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빛 비춤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괴로움을 당하고 복잡하게 된 것을 증거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집회에 갈 때 빛 비춤을 받고 그 문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되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빛이 있을 수 있는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성장할 길을 얻는 정

도에 달려 있다. 만일 우리 모두가 매일 매일 우리 안에서 자라실 수 있도록 자유로운 과정을 주님께 드린다면 우리가 함께 할 때마다 적절한 빛 비춤이 있을 것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장이 있을 때만이 충만한 빛 비춤이 있을 수 있다.

모든 가지들이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하여 자랄 수 있도록 등대에게 자유로운 길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등대가 가지들 안에서 자랄수록 더 많이 꽃피고 빛 비출 것이며 더 많은 빛이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가 교회 집회들 가운데 함께 할 때 빛은 점점 더 환해질 것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집회 가운데서 빛 비춤을 받은 것을 증거 할 수 있다. 우리와 관계있는, 덮여지고 숨겨진 어떤 것들이 빛으로 인해 드러난다. 이 빛은 중심 줄기로서 그분 자신 안에서 자라실 뿐만 아니라 등대의 가지들인 우리 안에서 자라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3. 우리의 생명 공급인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우리를 안내 함

등대의 빛 비춤은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한다.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빛은 우리 위에 비친다. 우리가 어둠 안에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성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또한 인도함을 받는다. 빛은 우리의 생명 공급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의 떡을 먹는 상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집회 가운데 빛 비춤 아래 있을 때 생명 공급을 받는 것이다.

오직 제사장들만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었다. 상위의 영양분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상에서 영양분을 받은 후 제사장들은 등대로 가서 숯처럼 탄 심지를 자르는 일과 신선한 기름을 공급하는 그들의 의무를 수행했다. 상위에 있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영양 공급을 받을 때 우리는 또한 빛으로 나아가 숯처럼 남은 심지를 잘라 다듬는다. 우리의 체험으로부터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빛이 우리 위에 비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양분으로 인도함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영양 공급을 받은 후 우리는 심지의 탄 부분을 자르고 깎아 다듬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심지를 깎아 다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깎아 다듬는다. 우리가 단지 천연적인 빛, 바깥뜰에 있는 빛만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영양분과 빛 비춤을 받기 위해 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자신의 심지의 탄 부분을 자른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대신 자신의 심지를 깎아 다듬는다. 나는 종종 나의 영양분인 그리스도를 누린 후 내가 내 자신의 심지의 탄 부분을 잘랐음을 증거 할 수 있다. 심지의 탄 부분을 잘라낸 결과는 더 환한 빛 비춤이다. 체험 가운데 이것은 상에서 받은 생명 공급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우리가 더 많은 생명을 누릴수록 더 많은 빛 비춤이 있을 것이다.

《출애굽기 라이프스타디 M92-94에서 발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생활(하나님-사람의 생활)
- 일상생활에서(3)

행5:42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하였다.

가정 집회를 세움으로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살

가정 집회를 세움으로 거룩하고 영적이며 뭍

당신이 약하다고 말하지 말고, 자신의 성질을 이길 수 없다고도 말하지 말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나 이것 저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다만 당신의 집에서 가정 집회를 세우라. 집에서 가정 집회를 한 후에 성령께서 사람들을 이끌어 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조금씩 사람들이 올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가정 집회를 갖지 않는다면 당신은 표준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당신은 아마 성경을 알고, 영적이며, 추구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만일 당신이 가정을 열지 않는다면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심지어 독신인 자매들도 자신의 아파트를 집회를 위해 열 수 있다. 모든 성도들의 속소는 그든 작은 가족들이 있든 없든 집회를 위해 열려야 한다. 당신은 "누구와 집회를 하란 말씀입니까?"라고 말할 것이다. 먼저는 천사들과 하고, 그리고는 믿는 이들과 하며 그리고 나서는 이웃들과 하라. 반드시 기도하고 애쓰며 이웃 중 한 명이라도 집회에 참석할 때까지 심지어 금식할 수도 있다. 당신의 가정에서 몇 차례의 집회를 하려고 결정한다면 분명히 길이 있다. 매일 매일 당신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당신은 많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있다.

당신은 거룩해지고 싶은가? 그렇다면 가정 집회를 세우라. 성경을 알고 싶은가? 그 어떤 것도 가정 집회를 세우는 것만큼 성경 지식을 추구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가정 집회는 합당하고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게 할 것이고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추구하는 동안 당신 자신이 가르침과 빛 비춤과 공급을 받을 것이다. 나 자신의 경험을 상기해 보면 내가 다른 이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할 때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다. 오늘날 주의 회복이 취해야 할 분명하고 단일하며 유일한 것은 가정 집회를 장려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성경에 나타난 집회 방식은 우리가 부흥되기 위한 방식임 성경에서 계시된 집회에서는 모든 이들이 기능을 발휘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하고 간증한다. 이것은 우리가 영 안에 살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들,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양심 안에서 다른 이들을 향하여 어떤 거리낌이 있다면 즉시 그것을 주님 앞에 자백해야 하고 화해해야 한다. 오직 그때에야 교통을 회복할 수 있고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길은 우리가 부흥되기를 요하는 길이다.

자연스럽게 가정을 통해 복음이 전파됨

믿는 이들의 가정에서 교회를 건축하면 그 가정들을 통해서 복음을 확산할 수 있다. 가정에 대해서 일을 잘한 교회들은 모두 큰 복음 집회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이 자동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가정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곳이다. 가정은 사람의 혼을 관통하며 깊이 파고들며 심지어 그의 영에까지 그러하다. 이것은 큰 복음 집회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일 년에 몇 차례 정도는 필요하다. 그러한 집회에서의 강조점은 씨를 뿌리는 데 있지 않고 거두는 데 있다. 핵심적인 것은 바로 가정에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고 가정들을 통해서 복음을 확산하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두세 가정들이 함께 소그룹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 형제자매들을 격려해야 한다. 소그룹에서 그들은 서로 교통하고 영적인 도움과 공급을 주며 서로서로 돌보아야 한다. 그리고 더 큰 교회 집회에서는 "진리 공과"와 같은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한 가르침은 주로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잘 협력하여 교회를 건축하면 주님은 우리를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직장을 가진 성도들은 주님의 현재의 필요를 채우고
영광스러운 생활과 목표를 가진

주님의 현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과거의 체현들과 이상을 회상해야 한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과거에 어떤 체험이나 어떤 이상이 있었으리라고 믿는다. 지금 우리는 그것들을 회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의 매혹하심과 부르심에 응해야 한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을 속에서부터 매혹하셨음을 입증한다. 이 매혹하심 안에 오늘날 새 길 안에서의 주님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위임과 헌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 과거에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위한 마음이 있었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했었다. 이제 우리는 이것들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는 얼마의 시간을 따로 쟁겨 두어 특별히 우리의 생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약간의 지침을 적어 두어야 한다. 매일의 생활 가운데 주님을 섬기기 위해 얼마간의 시간을 따로 쟁겨 두어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채워야 한다. 즉,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필요들이 있다. (1)복음을 전하고 새 사람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가라. (2)가정 집회를 통해서 새 사람들을 규칙적이고 끊임없이 도우라. (3)부지런히 소그룹 집회 돕기를 배우라. (4)지역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신인하기를 진지하게 추구하라. 이것은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157-161p 발췌》